한일 문말형식의 증거성과 의외성 기능*

- '것이다'와 'のだ'를 중심으로 -

김 정 민**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증거성(evidentiality)
  2) 의외성(mirativity)
3. 선행연구
  1) 한국어의 선행연구
  2) 일본어의 선행연구
4. 분석 및 고찰
  1) '것이다'와 'のだ'의 증거성 기능
  2) '것이다'와 'のだ'의 의외성 기능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언어유형론 분야의 증거성(evidentiality)과 의외성(mirativity)의 개념을 참고하여 한국어의 문말형식 '것이다'와 형태·통사적으로 유사한 일본어의 'のだ'를 대조 고찰한 것이다. 본고의 결과

---

* 본고는 논문 구성의 기초가 되는 金廷珉(2008)의 일부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일대학교 비즈니스외국어학부.

는 다음과 같다.

(Ⅰ) ‘것이다’와 ‘のだ’는 정보의 출처, 경로를 반드시 언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해당 명제가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증거(근거)에 의한 정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증거성 표지의 기능을 갖는다.

(Ⅱ) ‘のだ’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ⅰ)사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역)추론, (ⅱ)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추론, (ⅲ)제 3자의 심리·내면 상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낸다. 반면에 ‘것이다’는 (ⅰ)과 (ⅲ)의 용법은 ‘のだ’에 비해 제한적이고, (ⅱ)의 용법은 ‘-ㄹ/을 것이다’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Ⅲ) ‘것이다’와 ‘のだ’는 화자가 지각(경험)한 사태에 대한 놀람과 뜻밖임을 표시하는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갖는다.

본고는 ‘것이다’와 ‘のだ’를 대조분석한 선행연구가 주로 두 형식의 용법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에 치우진 경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두 형식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 이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결과가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어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언어유형론의 증거성 연구 분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증거성, 의외성, 언어유형론, ‘것이다’, ‘のだ’

1. 서 론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단적으로 말해 화자가 얻은 정보의 출

처, 근원(information source)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최근 언어유형론(typology) 분야에서는 세계의 각 언어에 나타나는 증거성 체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afe and Nichols 1986, Aikhenvald 2004, DeLancey 2001 등). 이러한 연구 동향과 함께 한국어학 분야에서도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과 주목을 받고 있다(정인아 2010, 송재목 2011, 박진호 2011 등).

본고에서는 언어유형론의 연구성과와 개념을 참고하여, 문법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문 (1)~(4)에서 보이는 문말형식 '것이다'와 형태, 통사적으로 유사한 일본어의 'のだ'[1]를 연구 대상으로 두 형식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연구 성과를 언어유형론 분야에 환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작례)
(2) (내가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이기갑 2006:75)
(3) <誰がやったのかが問題になっている狀況で>
あいつがやったんだな。 (益岡 2007:90)
(4) <本を探していて独り言で>
そうか、このスイッチを押すんだ。 (野田 1997:89)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고의 논의의 토대가 되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증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4절에서는 '것이다'와 'のだ'를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 형식의 기능

1) 본고에서는 '-ㄴ/는/던/ㄹ/을 것이다'를 총칭하여 '것이다'로, 'の(ん)だ, の(ん)です'를 총칭하여 'のだ'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분석,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고의 결론을 언급한다.

2. 이론적 배경

1) 증거성(evidentiality)

먼저 증거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증거성이란 화자가 얻은 정보의 출처, 근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말한다(Palmer 2001:8, Aikhenvald 2004:3, Nuyts 2006:10 등). 예를 들어 발화내용이 화자가 직접 목격한 정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인지, 혹은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한 내용인지, 명제내용을 얻은 정보의 출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성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수단이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영어와 유럽 언어는 증거성이라는 문법범주가 없는 언어도 있는 반면에[2], 북미원주민의 언어나 아마존 지역의 언어의 경우에는 직접 지각한 내용, 전문, 추론 등과 같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접사가 발달한 언어(Chafe and Nichols 1986, Aikhenvald 2004)도 있으며, Qiang어와 같이 간접지식과 직접지식의 정보, 즉 1개 이상의 증거성 표지가 하나의 술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언어도 있다(LaPolla 2003:69-70)[3].

이와 같이 증거성이라는 문법 범주가 범언어적으로 다르게 나타

---

2) 영어의 경우 *I guess, they say, I hear that* 와 같은 어휘적인 수단으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Aikhenvald(2004:10)에서는 논외로 하고 있다.

3) 송재목(2011:357)에서 재인용.

나기 때문에 증거성을 하나의 문법 범주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크게 2가지로 견해가 나뉜다. 첫 번째로는 증거성을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하위범주로 분류하는 입장(Palmer 2001)이다. 두 번째는 증거성을 시제(tense), 상(aspect), 양태(modality)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자적인 문법범주로 보는 입장(Aikhenvald 2004:7)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문말형식 '것이다'와 일본어의 'のだ'에 대해서 증거성의 개념을 참조하여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증거성과 양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으로 증거성만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는 언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성을 독자적인 범주로 보고 접근하는 쪽이 향후 언어유형별로 증거성의 체계를 밝히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의외성(mirativity)

'Mirativity'란 화자가 전달하는 문장의 명제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실과 놀람, 신정보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DeLancey 1997, 2001, Aikhenvald 2004).

'Mirativity'는 증거성의 연구와 함께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정인아(201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mirativity'에 관한 일관된 한국어 번역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정인아(2010: 117)는 '미예측 신정보', 홍택규(2008:165)는 '의심・놀람 증거성'으로, 박진호(2011:7)에서는 간결성 및 최근의 언어학계의 관행에 따라 '의외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에 따라 '의외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DeLancey(2001)는 증거성과 의외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하였고, Grunow-Harsta(2012)는 증거성과 의외성은 각각 독립된 범주로 보고 있고, 김경애(2002:55)[4]는 의외성을 넓은 의미의 증거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증거성과 마찬가지로 의외성도 하나의 독자적인 문법범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세계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박진호(2011:7-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에 따라서는 화자가 새로 알게 된 사실, 화자의 놀람과 의외성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지가 발달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의외성과 증거성 범주의 설정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각각의 개념을 '것이다'와 'のだ'의 분석에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의외성의 문법적 표지를 가진 언어 가운데, 이 표지가 사용 조건이 더 엄격한 언어(...)도 있고 느슨한 언어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유형론적으로/경험적 관점에서는 의외성과 양태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미리부터 전제하기보다는 의외성과 증거성, 양태를 각각 별개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 범주가 교섭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겸허한 태도일 것이다. (上揭論文:7-8)

이상으로 본고의 분석의 토대가 되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

4) 정인아(2011:117)에서 재인용.

3. 선행연구

1) 한국어의 선행연구

최근 한국어학 분야에서는 언어유형론의 연구 성과(Chafe and Nichols 1986, Aikhenvald 2004 등)에 힘입어, 증거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의 체계와 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종결어미 '-네', '-군', '-구나', 선어말어미 '-더-'를 증거성 표지로 보고 이들의 용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정인아 2010[5], 박진호 2011, 송재목 2011 등).

예를 들어 박진호(2011:10)에 따르면 '-네', '-구나'는 (5)과 같이 정보의 출처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경우를 나타낸다.[6]

(5) a. 이 꽃 참 예쁘구나/예쁘네. (시각)
b. 너 목소리 참 좋구나/ 좋네. (청각)
c. 이 꽃 냄새 참 좋구나/ 좋네. (후각)
d. 국이 참 맛있구나/ 맛있네. (미각)

(上揭論文:10, 예문 일부 인용)

이처럼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이다'를 증거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이기갑

---

5) 정인아(2010)에서는 증거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한국어의 증거성의 범주 및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인아(2010)를 참조.

6) 위에서 언급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네' 와 '-구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형식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2006) 이외는 없는 듯 하다. 上揭論文에서는 한국어의 증거 표현들은 대부분 '-ㄴ-를' 포함하는 것과, '-더-'가 있는 두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는 것이-', '-는 구나', '-는가 보다' 등이 해당된다고 하고,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6)처럼 화자의 구체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는 일종의 '증거성 양태'로, 화자가 새로 깨닫게 된 사실과 그에 수반되는 화자의 놀라움 등이 표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설명은 후술하는 본고의 입장과도 관련성이 깊은 지적으로 자세한 분석은 4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6)가. (내가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나. (내가 보니까) 그렇게 물이 깨끗한 거야.
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집에 있는 거야.
(이기갑 2006:75)

2) 일본어의 선행연구

일본어의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추측을 나타내는 'ようだ', 'らしい'와 전문의 'そうだ'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 최근에 일본어학 분야에서 고대 일본어의 'き'와 'けり'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メノマエ性(鈴木 1996)'이라는 용어로 도입되기도 했었다. 여기에서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のだ'를 증거성 표현으로 분석한 Aoki(1986)와 Aikhenvald(2004)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Aoki(1986:228)는 'ようだ', 'らしい' 등을 포함하여 일본어의 증거성 표현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고, 그 중 하나로 'のだ'를 들고 있다. 上揭論文에서는 (7)은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지만[7] (8)과 (9)에서는 'の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のだ'를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직접 알 수 없는 명제를 사실로 주장하는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사실표시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7) *彼は暑い。
(8) 彼は暑いのだ。
(9) 彼はむかむかしているのだ。(上揭書:228-230:원문은 영어)

그러나 Aoki(1986)는 위의 예문만을 들고 있어 ‘のだ’의 증거성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다음으로 Aikhenvald(2004)는 세계의 약 500개 이상의 언어를 대상으로 증거성 표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上揭書에서는 일본어의 증거성 표현은 ‘전문’과 ‘그 의외의 모든 형태’로 구별되는 “A3 system(上揭書:81)”으로 분류가능하다고 하고, ‘のだ’를 일본어의 증거성 표현으로 보고 있는데, ‘のだ’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낸다고 하기 보다는 “정보의 확인(validation of information)”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화자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형식을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증거성표현의 체계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이 복수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9)] 그러나 上揭書에서는 ‘のだ’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Aoki(1986)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7) 소설 등에서는 가능할 경우도 있다(益岡 2000:4～8).

8) “*no* or *n* is a marker which converts astatement for which ordinarily no direct knowledge is possible into a statement which is asserted as a fact.”

9) This morpheme can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validation of information rather than the way it was obtained. Since hearsay in Japanese can co-occur with other so-called evidentials, it could be considered as a separate system on its own; in this case we could just say that Japanese has A3 system. However, since marking information source in Japanese is a speaker’s choice, it could be argued that Japanese has a range of optional devices for marking reported information, rather than grammatical evidentiality.”

이상으로 증거성의 관점에서 논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선행연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4. 분석 및 고찰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와 'のだ'의 분석 가능성을 제시[10]하고 두 형식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 고찰한다.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Aoki(1986)와 Aikhenvald(2004)와는 달리, 두 형식이 각각 '것'과 'の'라는 명사화소(nominalizer)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명사화(nominalization)의 기능 확장(Rhee 2008, Horie 2008 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을 밝힌다.

1) '것이다'와 'のだ'의 증거성 기능

(10)~(13)[11]의 예문에서 일본어는 'のだ'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 a. (濡れている地面を見て)昨日雨(が)降ったんだ。
b. (室内にいて雨の降っている音を聞いて)
雨(が)降っているんだ。
c. (外に出て雨が降っているのを見て)雨(が)降っているんだ。
d. (友だちから「雨が降っている」と聞いてその反応として)
雨(が)降っているんだ。

---

10) 본고에서 취하는 접근 방법으로 '것이다'와 'のだ'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모두 증거성과 의외성으로 분석되는 것은 아니다.

11) (10)-(13)은 화자가 사태를 인식함과 거의 동시에 발화되는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로, 청자 없이 화자 자신의 독백으로 쓰일 수도 있다.

(11) あっ、財布がない。電車の中ですられたんだ。[12]
(12) (泣いている友人を見て)よほど悲しいんだ。
(13) カラスが鳴いている。何か不吉なことが起こるのだ。

(10a)와 같은 문맥에서 'のだ'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젖은 노면'을 화자가 목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제 비가 왔음'을 추론하고 있다. 단, 실제로 눈이 온 것인지 비가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昨日雨が降った。'는 非文이 된다.

또 (10a)를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비(또는 눈)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이 전제가 되므로, 발화시에 이미 비(또는 눈)가 온 결과인 '젖은 노면'을 증거로, 그 결과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역)추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10b)는 비가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실내에 있으면서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것을 추론하고 있다. 이 때 정보의 출처는 '청각'이 되고, (10a)와 달리 과거가 아닌 현재 상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화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雨(が)降っている。'와 같은 非 'のだ' 문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음으로 (10c)는 화자가 실내에 있어서 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몰랐는데 실외로 나간 순간, 비가 내리는 광경을 실제로 목격함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화이다. 이 때, 정보의 출처는 '시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10d)는 친구가 전해준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단계 중에 행해진 화자의 발화이고, 입수한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hearsay)'이 된다.

다음으로 (11)은 발화시에 화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이 없음'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그 원인에 대한 추론을 나타낸다고 할 수

12) 예문(11)은 田野村(1990:11)에서 (13)은 같은 논문의 p.20에서 인용.

있겠다.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두고 왔는지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電車の中ですられた (즉 非'のだ'문')라고 하면 어색함을 알 수 있다.

(12)의 경우는 화자가 발화시에 '울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증거(상황)을 근거로 그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0a), (11)과 공통점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제 3자의 심리・내면 상태를 추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13)은 발화시에 들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판단 근거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있다. 이 때 '까마귀 울음소리는 운이 좋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상정하게 되고, (10a), (11)과는 달리 (13)은 발화시 이전이 아닌 발화시보다 앞으로 일어날 미실현(irrealis)사태에 대한 추론이기 때문에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귀결을 암시하는 증거(幸松 2007:135)"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のだ'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법을 지닌다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본고에서는 (10)~(13)과 같은 예문에 대해서 'のだ'가 시각, 청각 등의 구체적인 증거(근거)를 입수한 출처, 경로를 반드시 언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해당 명제가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증거(근거)에 의한 정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증거성 표지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또한 증거를 바탕으로 (ⅰ)사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역)추론, (ⅱ)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추론, (ⅲ) 제 3자의 심리, 내면 상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것이다'는 어떠할 것인가. 위의 예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용례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0a')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어제 비(가) {왔네/왔나 보다/왔구나/* 온 것이다}.
(10b') (실내에서 비 오는 소리를 듣고)
비 {오는 구나/ 오나 보다./* 오는 것이다}.
(10c') (밖에 나가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비 {오네./* 오는 것이다}.
(10d') (친구한테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비 {오는 구나/* 오는 것이다}.
(11') 어? 지갑이 없네. 전차 안에서 소매치기 {*당한 것이다/당했나 보다}.
(12') (울고 있는 친구를 보며) 어지간히 {*슬픈 것이다/슬픈가보다/슬픈 모양이다/슬프구나}.
(13') 까마귀가 울고 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13')의 한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것이다'의 사용은 (13')을 제외하고는 어색하고, (10')~(12')는 '것이다' 보다는 '-네', '-구나' 또는 '-나 보다'와 같은 우언적(periphrastic)[13] 형식이 보다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13')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미실현 관형사형 어미를 동반한 '-ㄹ/을 것이다'의 형태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3')의 '-ㄹ/을 것이다'가 귀결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증거로 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증거성 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것이다'의 분석을 정리하면, '것이다'도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のだ'의 (ⅰ), (ⅲ)의 추론 용법에는 제약이 나타나지만, (ⅱ)의 귀결을 암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할 경우에는 '-ㄹ/을 것이다'의 형식으로 나타나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13) 박진호(2011:19)

한국어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ㄹ/을 것이다'는 '-겠'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고창운 1991, 野間 1990 등), 한일 양국언어의 대조연구 분야에서는 의미적으로는 '-ㄹ/을 것이다'가 일본어의 'だろう', 'はずだ'와 유사하기 때문에(野間 1990), 'のだ'와 대응하는 형식에서는 논외가 되어져 왔었다(李2001, 印2003, 2006).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것이다'와 'のだ'가 각각 '것', 'の'라는 명사화소(nominalizer)를 포함하고, 그 앞에는 각각 용언의 '관형사형/連体形'이 동반된다는 형태·통사적 유사성에 착안한다면, '-ㄹ/을 것이다'의 추론 기능은 '것'이라는 명사화(nominalization)의 기능이 확장(변이)된 패턴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Rhee 2008, Horie 2008, Yap and Matthews 2008 등). 또한 실제로 Aikhenvald(2004:105)[14]는 명사화가 증거성 표시와 유사한 기능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언어유형론적으로도 관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 '것이다'와 'のだ'의 의외성(mirativity)기능

다음으로 담화에서 빈출되는 '것이다'의 용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것이다'는 (14)~(16)와 같이 화자의 감정적인 발언이나, 뜻밖의 놀람을 표출하는 문맥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이 때 일본어의 'のだ'와 대응이 잘된다(印2003, 2006, Kim and Horie 2009).

(14) 오늘 학교에서 문득 창밖을 봤는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14') 「今日学校でふと窓の外を見ていたら、日が昇っているのに雨が降っている**んです**。」

14) "Mood, modality, tense, person, nominalizations,and complement clauses can develop overtones similar to some semantic features of evidentials."

(15) 근데 팥빙수를 가지고 가서 먹는 외국인 모습이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팥빙수가 보통 밑에 얼음 위에 팥, 후르츠, 젤리, 체리, 연유(...), 머 이렇게 되 있잖아요. 섞어서 먹어야 맛있을 텐데 그냥 체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로 떠먹는 **거예요**.

(15') 「ところが、小豆のかき氷を持って行って食べる外国人の姿に私はもどかしく感じました。小豆のかき氷って、普通下に氷、上に小豆、フルーツ、ゼリー、チェリー、練乳(...)まぁ、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混ぜて食べてこそおいしいものなのに、チェリーからはじめて、1つ1つ別々にすくって食べるのです。」

(16) "댁의 따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선생님은 (...)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업 중에 책상 뚜껑을 백 번도 더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 어째 책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싶어서 돌아보면, 이번에는 수업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6') 「おたくのお嬢さんがいると、クラス中に迷惑になります。」(略)先生は、(...) 説明にとりかかった。「まず、授業中に机のフタを百ぺんくらい、開けたり閉めたりするんです。(...) 机で音をたててないな、と思うと、今度は、授業中、立ってるんです。ずーっと!」

먼저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는 일반적으로 화창한 날씨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 해가 떠 있는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화자의 발화내용이다.

(15)는 한국 사람이라면 팥빙수를 먹을 때 얼음과 그 위의 토핑을 함께 섞어 먹어야 맛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섞어 팥빙수를 먹을 때 섞어서 먹지 않고 체리, 젤리 등을 하나씩 하나씩 떠서 먹는 모습 보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은 수업 중에 조용히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태도인데, 토토(=댁의 따님)가 수업시간에 소리를 내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 (14)~(16)에서 각각 '것이다'와 'のだ'를 제외하면 화자의 놀

라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또, (14)~(16)에 나타나는 두 형식의 용법은 앞에서 살펴본 (10)~(13)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예문에 대해서 '것이다'가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것이다'와 '-구나'와 '-네'가 나타내는 놀라움의 차이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이 '-구나'와 '-네'를 화자의 놀람, 뜻밖임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지로 보고 있다(Lee 1991, DeLancey 1997, 이기갑 2006, 박진호 2011 등). 본고에서는 '-구나', '-네'와 '것이다' 의 차이점은 전자가 표명하는 놀람은 화자가 지각하나 사태(증거)에 대해 느끼는 놀람을 지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표명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발화시보다 이전(과거)에 화자가 경험한 사태(증거)에 대해 느낀 놀람을 담화의 장으로 가지고 와서 청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화자의 놀람이란 (14)~(16)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자 자신의 기대나 예상,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를 들어 일반상식 등)와 상반되는 사태를 지각, 경험했을 경우에 부차적으로 동반되는 놀람을 말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14)~(16)를 보면 '것이다'와 'のだ' 앞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과거(실현)의 관형사형/連体形이 공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과거(미실현)의 관형사형/連体形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비과거(미실현) 관형사형/連体形의 사용이 과거에 일어난 사태를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재현하는 표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工藤 1993)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것이다'는 화자가 예기치 못하게 경험한 사태에 대한 놀람, 뜻밖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외성 표지에 가까운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용법은 (14)~(16)에 대응되는 일본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のだ’에서도 관찰된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언어유형론 분야의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을 참조하여, 한국어의 ‘것이다’와 일본어의 ‘のだ’의 기능에 관해 대조 고찰하였다. 본고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것이다’와 ‘のだ’는 정보의 출처, 경로(시각, 청각, 전문 등)를 반드시 언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해당 명제가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증거(근거)에 의한 정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증거성 표지 기능을 갖는다.

(Ⅱ) ‘のだ’는 증거를 바탕으로 (ⅰ)사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역추론, (ⅱ)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추론, (ⅲ) 제 3자의 심리, 내면 상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것이다’는 ‘のだ’에서 나타나는 (ⅰ)과 (ⅲ)의 용법은 ‘のだ’에 비해 제한적이고, (ⅱ)의 기능은 ‘-ㄹ/을 것이다’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Ⅲ) ‘것이다’와 ‘のだ’는 화자가 이미 지각(경험)한 사태에 대한 놀람과 뜻밖임을 표시하는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갖는다.

‘것이다’와 ‘のだ’를 대조분석한 선행연구가 주로 두 형식의 용법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에 치우진 경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 본고는 두 형식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 이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결과가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어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언어유형론의 증거성 연구 분야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고창운,「'-겠-'과 '-ㄹ 것이-'의 용법」,『겨레언문학』 15, 겨레어문학회, 1991, pp. 595-614.

김경애,「증거표지와 정보의 출원」,『한경대학교 논문집』 33, 2002, pp. 51-58.

이기갑,「한국어양태(modality) 표현 -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p. 67-83.

박진호,「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1, pp. 1-25.

송재목,「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중복실현」,『비교문화연구』 2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1, pp. 355-373.

정인아,「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홍택규,「증거성과 동사범주의 주관화」,『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2008, pp. 155-191.

李南姫,「現代日本語の「のだ」文の総合的研究」, 大東文化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01.

印省熙,「日本語の『のだ』と韓国語『-ㄴ것이다』の対照研究」, お茶の水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03.

_____,「日本語の『のだ』と韓国語の『-ㄴ것이다』 - 会話文の平叙文の場合 -」,『朝鮮語研究』 3, 朝鮮語研究会(編), くろしお出版, 2006, pp. 51-94.

金廷珉,「日韓語の名詞化の談話・語用論的機能に関する対照言語学的研究 -「のだ」と「것이다(KES-ITA)」を中心に -」, 東北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博士論文, 2008.

工藤真由美,「小説の地の文のテンポラリティー」,『ことばの科学』 6, 言

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1993, pp. 19-65.
鈴木泰,「メノマエ性と視点(Ⅲ) - 古代日本語の通達動詞のevidentiality(証拠性) -」,『日本語文法の諸問題: 高橋太郎先生古希記念論文集』, 鈴木泰, 角田太作(編), ひつじ書房, 1996, pp. 107-138.
田野村忠溫,『現代日本語の文法Ⅰ - 'のだ'の意味と用法 -』, 和泉書院, 1990.
野田春美,『「(の)だ」の機能』, 日本語研究叢書 9, くろしお出版, 1997.
野間秀樹,「『할 것이다』の研究 - 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朝鮮學報』134, 朝鮮學會, 1990, pp. 1-64.
益岡隆志,『日本語文法の諸相』, くろしお出版, 2000.
益岡隆志,『日本語モダリティ探究』, くろしお出版, 2007.
幸松英恵,「時間的に逆行している推論に関する一考察」,『日本語文法』7-2, 日本語文法学会, 2007, pp. 120-136.
Aikhenvald, A.Y., *Eviden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Aoki, H., "Evidentials in Japanese", In: W. Chafe and J. Nichols(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Ablex, 1986, pp. 223-239.
Chafe, W. and Nichols J.,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Ablex, 1986.
DeLancey, S., "Mirativity: The Grammatical Marking of Unexpected Information", *Linguistic Typology* 1, 1997, pp. 33-52.
_____,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p. 369-382.
Grunow-Harsta, K., "Evidence from the Himalayas for the independence of Mirativity and Evidentiality", Handout at Workshop on Epistemicity, Evidentiality and Attitude in Asian Languages: Typological, Diachronic and Discourse Perspectives, 3th-5th September, 2012, HongKong Polytechnic University, p. 19.
Horie, K., "Grammaticalization of nominalizers in Japanese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A contrastive study with Korean", In López-Couso, and E. Seoane (eds), *Rethinking Grammaticalization Twenty-first Centur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Ser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8, pp. 169-187.

Kim, J-M and Horie, K., “Intersubjectification and Textual Functions of Japanese *Noda* and Korean *Kes-ita*”, In T. Yukinori etal(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6, Stanford: CSLI, 2009, pp. 279-288.

LaPolla. R.J., “Evidentiality in Qiang”, in A.Y.Aikhenvald and R.M.W. Dixon(eds), *Studies in Evidentia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2003, pp. 63-78.

Lee, H-S.,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CLA, 1991.

Nuyts, J., “Modality: Overview and linguistic issues.”, In W.Frawley (ed.), *The Expression on Modality,* Mouton de Gruyter, 2006, pp. 1-26.

Palmer, F.,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Rhee, S-H., “On the rise and fall of Korean nominalizers”, In M. J. López-Couso, and E. Seoane (eds.), *Rethinking Grammaticalization of Twenty-first Centur*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Ser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2008, pp. 239-264.

Yap, F.H and Matthews S., “The development of nominalizers in East Asian and Tibeto-Burman language”, In M.J. López-Couso, and E. Seoane (eds.), *Rethinking Grammaticalization of Twenty-first Centur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Ser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8, pp. 309-341.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on Sentence-Final Predicates in Japanese and Korean:
A particular attention to '*Kes-ita*' and '*Noda*'

Kim, Joung-Mi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unctions of '*kes-ita*' in Korean and its Japanese counterpart '*noda*' and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a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Ⅰ) Both '*kes-ita*' and '*noda*' can serve the function of evidentiality which signals to the presence of some evidence for a proposition or statement, whether it is a linguistic(visual) or non-linguistic(visual) one.

(Ⅱ) '*Noda*' encodes inferences based on some evidence, such as (ⅰ) inference of the reason for the past event/state of affairs, (ⅱ)inference of the conclusion of the event which will happen in the near future, and (ⅲ) inference of the others' internal state. In contrast, the functions of (ⅰ) and (ⅲ) coded by '*noda*' above are relatively restricted in Korean '*kes-ita*'. As for (ⅱ), however, an inference based on general knowledge or common sense is marked by '*-l kes-ita*' preceded by the irrealis adnominalizer *-l* in Korean.

(Ⅲ) Both '*kes-ita*' and '*noda*' are extended to the mirativity which refers to a new, unexpected information to the speaker.

Key words: Evidentiality, Mirativity, *kes-ita*, *noda*, Typology, Contrastive Study

김정민
소속: 경일대학교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일본어전공)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경일대학교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전화: 010-4944-3020, (053)850-7473
전자우편: kjm-0630@hanmail.net, kjm0630@kiu.ac.kr

이 논문은 2012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12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24일 게재 확정함.